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에 다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찢어지고 양들은 상처를 받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간곡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1 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했고 사랑으로 위로했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 절을 보십시오.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제가 섬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트센터는 음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악기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고유의 음색과 음량이 있습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서 서로 마구 소리를 낸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보에가 '내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청아해' 라며 오케스트라 내내 쉬지 않고 청아한 소리를 내면 그건 청아한 '소음'입니다. 악기마다 정확한 음정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타이밍 맞춰 들어오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다른 악기 소리를 들으며 셈 여림을 조절할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강력한 요새가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채가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3a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4 가지를 권면합니다. "3b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째,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찾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에게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잘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자기 일을 돌보라.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잘 써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기본생활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자기 일만 돌보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학 시절 캠프생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빠듯한 캠프 살림에 점심을 굶지 않기 위해 그 주에 쓸 학교 구내식당 식권을 사다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도록 했는데, 갖다 놓는 날 바로 다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은 식권 한장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역자를 위해 한두장 짬은 남겨 놓으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5 절을 보십시오.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하여 가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마음은 φρόνημα(fronima)인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행동이 불량한 학생을 선생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품으라는 '품어야 한다'는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만 먹을 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당연한 특권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것을 당연히 취하지 않고 내어 주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희생과 겸손을 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7 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7)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 무시하지만, 이래 봐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한 사람이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한 낮아짐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 바퀴벌레가 출현했습니다. 참엔 저 놈들도 생명이라고 그냥 놔뒀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발로 밟아 죽이고, 불로 지져 죽여버렸습니다. 하찮은 목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불로 심판해도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사라질 존재!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 벌레 만도 못한 존재로 낮아져 오셨다 생각하면, 이건 상상도 못할 낮아짐임을 깨닫습니다. 더구나 그 바퀴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바퀴벌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낮아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복종했습니다. 복종은 낮아짐을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복종할 때, 신기하게도 좋은 열매를 맺고 본인도 성장합니다.

부부 생활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서로 이기려고 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족이 됩니다.

양들을 섬길 때에도 잘 섬겨주다가 못 참고 화를 내면 그 순간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립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거나 하나가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겨줄 때 화평이 유지됩니다. 부단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 동역자는 저보고 자존심이 쎈 사람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20 년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트센터는 원래 노바울 선교사님이 지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리더십을 2010 년 경에 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오자마자 노바울 선교사님이 세운 여행사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책임목사이자 여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돌아보니, 지난 날 노바울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자기 주장을 너무 했고 또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해 왔음을 봅니다. 그런데 노바울 선교사님은 한 번도 저의 의견과 주장을 No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성이 '노'씨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바울 선교사님은 저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의 장점을 살려 주려 한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노바울 목자님의 낮아짐과 섬김이 있었기에 아트센터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이제 제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아트센터 동역자님들을 낮아져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은 매우 좋지만, 결국 나를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손해뿐인 인생일까요?

9~11 절을 보십시오. "9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낮춤으로써 세상의 화평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끈 이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 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실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낮아짐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절을 보십시오.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교회 안의 분쟁과 불화를 함께 해결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다툼과 허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13 절을 보십시오.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 즉 하나됨의 삶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게 만드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은혜롭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자발적으로는 자신을 낮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며,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다투었던 마음을 화개케 하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코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구원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완성됨이 확실합니다.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소원을 갖게 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직접 개입하시어 소원과 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14, 15 절을 보십시오.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는 불평과 의심을 말합니다. 불평과 의심이 가득하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은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생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살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삶은 곤고해 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이 빠지고 공동체 그릇이 깨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신뢰로써 행한다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화목한 공동체가 있다구?'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순전하여진다면 우리는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번제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란, 그들이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희생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이 너희에게 있다면, 나는 그 위에 나 자신을 포도주와 같이 바친다 하더라도 기뻐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동역자들에게 '낮아지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낮아지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히 따랐던 자였습니다.

(19 절을 보십시오.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6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낼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이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습디다. 헌신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환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연단된 인격을 갖고 있는 자였기에 바울은 그를 믿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도움에 대한 감사도 전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자신도 위로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25 절을 보십시오.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다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그가 빨리 돌아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로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혹 이들의 갑작스런 빌립보 방문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에 오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을 서신에 포함하였습니다.

저는 2002 년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교사로 파송되어 올해로 20 년째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송될 당시 한국에서 제자를 1 명도 세우지 못하였고, 선교사로서의 자격이나 사명감을 온전히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 목자를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러시아 종교법까지 개정되어서, 사실상 러시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을 생각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러시아로 파송될 때부터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이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러시아 양들은 아직 없지만, 저희 아트센터에 선교가정이 4 가정이나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 년 선교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이 열매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교에 대한 열정도 부족했던 저를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트센터가 러시아양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가정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복종하듯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저에게 낮아짐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저희 센터 동역자들은 물질자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센터에서 더 자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 동역자들 각 사람 마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 소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섬기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최악되고

자고하여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소원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동일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